

Quo vadis, Theologia ?

- 신학의 길과 신학함의 길

A Theological Reflection on Theology

전광식_철학박사, 고신대 신학과교수
Prof. Dr. Koang-Sik Chon

목차

들어가는 말	16
I. 신학의 길	18
1. 바로 생각해보기- '신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19
2. 신학에 있어서의 natura와 ratio, revelatio	22
3. 신학에 있어서의 text와 context	26
4. 신학에 있어서의 신앙(fides)과 지식(scientia)	35
II. 신학함의 길	45
1. 신학의 내부적 목적(內部的 目的)	45
2. 신학의 외향적 목적과 기능	56

주요어 | 신학, 신학의 본질, 신학의 어원, 신학의 목적, 성경과 성령

요약문 |

1930년대에서 60년대에 이르기까지 칼 바르트(Karl Barth)가 행한 언설과 편지를 모은 모음집의 제명(題名)을 "Der Götze wackelt(우상이 비틀거린다)" 고 했지만 오늘날 '신학이 비틀거린다' (Die Theologie wackelt). 신학이 비틀거리는 이유는 먼저는 교리와 신학이 교회에서 배척당하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일부 학자들이 신학을 인문학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때문이요, 셋째는 오늘날 상대주의와 종교다원주의의 시대정신이 교의적이고 배타적이 교리와 신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학은 본래 이교 헬라적 배경에서 고대 신들의 이야기와 결부되어 사용되었지만 그후 점차 기독교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신학은 성경적 기초를 지닌다. 신학은 신앙 및 신앙고백과 분리되지 아니한다. 신학은 인격 및 삶과 분리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신학은 교회 공동체와 분리되지 아니한다.

신학의 출발과 구성요소에 있어서 신학은 오로지 계시적 내지 초자연적 신학(theologia revelata sive supernaturalis)이어야 하고 이러한 계시와 초자연성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종교개혁의 신학은 오직 성경(sola scriptura)에서 나오고 오직 성경 위에 서고 또 오직 성경을 지향한다.

신학의 중심점과 강조점에 있어서 신학은 성령님과 Context를 무시한 성경문자주의나, 오로지 Context 중심의 상황화 신학이 아닌 Text-Context-Text 형태의 신학이 되어야 한다.

신앙(fides)과 지식(scientia)의 문제에 있어서 신학은 하나의 학문으로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문이 갖는 논리적 명료성과 합리적 체계성을 지닌 지식의 한 형태로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학문과는 다른 신앙적 작용이 수반되어야 한다. 신학의 구성에 신앙적 작용이 수반되는 것에 신학의 신학됨이 있고 또 여타의 학문과 구분되는 신학의 독특성이 놓인다.

신학은 '은혜와 진리' (요 1:14), 성령님과 성경으로 충만해야 한다.

신학은 이중적 목적을 지닌다. 신학은 "신앙의 학문", 즉 '신학(信學) 이기 때문에 그것의 목적은 이 신앙과 관련되어 전개된다.

신학의 첫 번째 목적은 신앙과 신앙인에 대한 것이요, 그것의 두 번째 목적은 불신앙과

불신자를 위한 것이다. 신학의 내부적 목적 가운데 첫 번째는 교리체계화인데 이것은 신학의 교의적 기능, 구성적 기능(構成的 機能)이라 할 수 있다. 신학의 내부적 기능 가운데 두 번째는 기독교적 인생관과 세계관, 그리고 사상과 학문의 초석을 제공하는 기능이다.

신학의 외향적 목적과 기능은 불신자와 불신자의 세계를 향한 것이다. 이는 대개 불신자 세계의 영적 무지와 미신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복음을 소개하고 선포하는 기능을 지닌다. 이 외향적 기능을 세분해서 얘기하면 선교적 기능, 변증적 기능, 견책적 기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변증학에 있어서의 승리는 결코 지적인 승리에 있지 않는 것이다. 그것의 최종적 목표는 영적변화와 영적승리이다.

신학의 유일한 길은 성경이고 신학함의 유일한 길은 성령님이시다.

전광식 교수

고신대학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 졸업, 독일의 Regensburg대, Munchen대, 영국의 Oxford대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새로운 밀레니움이 시작되는 해에는 Harvard대학에서 고전학을 연구하다.

「서구의 황혼에 대한 세가지 생각」(CUP, 1987), 「마르크스주의 이후의 철학」(이문, 1995, 2005증보판), 「배움과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CUP, 1997) 「고향: 그 철학적 반성」(문학과 지성사, 1999), 「가난과 부요의 저편」(SFC, 2003), 「신플라톤주의의 역사」(서광사, 2002), 「문명의 황혼과 소망의 그리스도」(CUP, 2005), 「경건의 길」(기독교사상연구소, 2006), 「성경적 환경관」(기독교사상연구소, 2006) 등의 저서가 있다.

이 땅에 성경적 세계관을 펼치는 기독교교육동역회(DEW)의 이사, 밴쿠버세계관대학원(VIEW)의 객원교수, 기독교적 학문연구를 선도하는 「통합연구」편집인,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르치는 독수리기독교중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고신대 교무처장과 부총장, 총장대행을 역임한 후 현재 기독교 사상연구소장과 신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신학사상사와 철학사, 학문사와 예술사 등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평생 고향의 집 <소소가(蕭蕭家)>에서 학문의 숲길을 걷고 기도의 들녘을 산책하고 싶어 한다.

chon177@kosin.ac.kr

Abstract

Quo vadis, Theologia ? - A Theological Reflexion on Theology-

Prof. Dr. Koang-Sik Chon

"Der Götze wackelt" - it is the title of Barth's collected writings published in the 1930-60's, but today not only 'Götze', but also 'die Theologie wackelt'. The reasons why the christian theology is staggering, are as followings: firstly,

because dogmas and theology are generally 'kept out' in the contemporary pietism-and-spiritualism-oriented local church; secondly, because some scholars as H. Dooyeweerd(He says that our knowledge of God is not primarily gained in a theological way. Theology is theoretical knowledge. True knowledge of God and of ourselves is concerned with the horizon of human experience. It has a religious enstatic character) (New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 II, 495) and N. Wolterstorff did not give a special status to christian theology, but considered it as a discipline of human sciences; thirdly, because religious relativists and pluralists with the *Zeitgeist* of postmodernism will not tolerate any theological dogmas which seem to be exclusive in character, to exist.

In its origin, the concept 'theology' had been used in connection with greek mythology, before it was applied gradually to the christianity. What is Christian Theology, and how must it be?

Theology has the Biblical basis.

Theology is not separated from the Biblical Faith and Confession.

Theology is not separated from the Personality and Life of the Christian.

Finally, theology is not separated from the Believers' Community.

In its essential character and constituting elements, theology must be inevitably *theologia revelata sive supranaturalis*, and its supernatural nature is based on the Holy Scripture as the Word of God. The Reformed Theology comes from *sola scriptura*, is based on *sola scriptura*, and points to *sola scriptura*. The christian theology must be full of 'grace and truth' (Joh.1:14), of Holy Spirit and Holy Scripture.

The functions and purposes of theology are dual: firstly, theology has two functions for the church, that is, confessional - dogmatic function and function to provide foundations for christian worldview, thought and scholarship etc; secondly, theology has also two functions for the non-christian world, proclaiming(missionary) and apologetic-elentic functions. In this function, the main aim of theology is to proclaim the Gospel of Jesus Christ toward the world.

The only way of theology is Holy Scripture, the only way of *theologisieren*(theological activity) Holy Spirit.

Keywords:

Theology, Nature of Theology, Origin of Theology, Holy Scripture and Holy Spirit

들어가는 말: '신학이 비틀거린다'

"Der Götze wackelt(우상이 비틀거린다)" - 1930년대에서 60년대 에 이르기까지 칼 바르트(Karl Barth)가 행한 연설과 편지를 모은 모음 집의 제명(題名)이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비틀거리지만', 여기에서의 우리의 논의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신학이 비틀거린다' (Die Theologie wackelt).

신학이 비틀거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그 가운데 현실적으로 대표적인 세가지 요인을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정신 가운데서 신학이 응당 있어야 할 '집'인 교회에서 교리와 신학이 배척당하고 있다. 목회 신학은 가출(家出)중이다. 오늘날 세상의 교회들은 근세의 경건주의일파가 범한 오류처럼 감성과 영성을 내세우면서 교리와 신학을 멀리하고, 기독교는 '머리의 종교'(Kopfreigion)가 아니라 '가슴의 종교'(Herzreligion)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슴뿐만 아니라 머리도 주셨고, 감성과 의지 뿐만 아니라 지성도 주셨다. 인간이 창조받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에는 지, 정, 의와 같은 전(全)인격이 다 들어 있고, 그리고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신 6:5 등) 사랑하고 섬기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지, 정, 의를 다하여 섬기라는 뜻도 담겨있다. 교회와 성도의 신앙생활은 영적 열정과 함께 성경적 교리 내지 신학 위에서 있어야 한다.

둘째, 신학이 비틀거리는 이유는 학문을 하는 학자들이 신학을 독특한 위치에 두지 않고 한낱 '인문학'의 범주에 두기 때문이다. 특히 서글프게도 자기 나름대로는 '기독교 학문'을 한다고 자평하는 학자들 가운데서도 철학이야말로 모든 학문을 포괄하는 반면 신학은 단지 실재영역의 한 분야만을 다룬다고 보는 그릇된 시각이 있다.

이런 시각을 지닌 대표적인 학자들 가운데는 과거의 Hermann Dooyeweerd(화란 자유대학)²⁾, 그리고 오늘날 Nicholas Wolterstorff (Yale 대학, Calvin College)³⁾ 같은 이들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생각과 달리 그 역사와 본질에 있어서 신학은 인문학과 전연 다르므로, 신학이 결코 인문학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 역사적으로 '인문학(humanitas)' 이란 근세 초 르네상스와 그 이후 계몽주의 시대에 '신(神)의 학문'인 신학(divinitas)에 대항하기 위한 '인간의 학문'으로서의 인문학(humanitas)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신학이 인문학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인가?

그리고 인문학이란 '인간 정신과 그것의 산물'을 다루는 것인데, 신학이 어떻게 인간 정신의 산물이란 말인가? 아마 신학의 중세적 버전(version)이나 자유주의 신학을 보면 신학도 인간정신의 요소도 있겠지만 그 본래적 의미에서의 신학이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신학을 하나의 개별학문, 주변학문으로 돌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학문을 하나님의 말씀과 따

1) K. Barth, *Der Götze wackelt. Zeitkritische Aufsätze, Reden, und Briefe von 1930 bis 1960.* Hrsg.v. K Kupisch, Berlin: Käthe Vogt Verlag, 1961, Waltrip 1993.

2) H. Dooyeweerd, *A New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 Dooyeweerd는 실제의 15양상 가운데서 신앙을 제일 위의 양상으로 돌리고 신학은 '신앙의 분야를 다루는 한 학문'으로 신학을 주관주의화시키는 오류를 범했다.

3) 무엇보다 최근 열린 제3회미국 켈빈대학교 초청 국제 학술세미나(고신대, 백석대, 한동대 공동주최), 2006. 6.19-21 부산 아르파나 유스호스텔, Wolterstorff의 <Humanities> 발표논문 "The Place of Education in the Humanities in Christian Higher Education" 참조

른 성경적 교리에서 떠나가게 할 위험을 안고 있다.

셋째는 오늘날 기독교 주변과 종교일반에 일어나고 있는 반(反)교조주의 내지 반(反)교리주의,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로 인하여 성경적 신학이 비틀거리고 있다. 세상은 바야흐로 인본주의, 상대주의, 그리고 종교다원주의가 횡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리적이면서 일견 교조적 또는 배타적으로 비치는 성경적인 신학을 제시하는 것은 매력도 없을 뿐 아니라, 신학적 수구주의로 낙인찍힐 수 있다. 하지만 진리의 길은 하나이며, 진리의 말씀은 하나이며, 진리의 교리는 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절대이시고 성경도 절대적 진리이다.

이렇게 비틀거리는 신학의 위기 앞에서 도대체 신학이란 무엇이었으며, 또 무엇이어야 하는지, 또 신학의 목적은 무엇인지 다시금 음미해 보려고 한다.

I. 신학의 길

굳이 Karl Jaspers를 들지 않더라도 '철학'에는 '철학적 체계'(Philosophisches System)와 '철학함'(philosophieren)이 있다. 철학뿐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도 그것이 삶의 어떤 관련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면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이 글의 주제인 신학에도 '신학적 체계'(theologisches System)와 '신학함'(theologieren) - 이 후자의 독일어 개념은 논자의 조어(造語)이긴 하지만 -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학'이라면 신학적 체계를 뜻하는데, '신학함'(theologie)이라고 한다면 앞의 것에 대한 고백적? 신앙적 자세,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한 실천적 자세를 의미한다고 하

겠다. 우리는 신학의 이러한 두 측면을 염두에 두고 신학의 개념과 본질을 상론해 보고자 한다.

1. 바로 생각해보기 - '신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신학'을 나타내는 헬라어 개념어인 'θεολογία'나 'θεολογια επι στημη'는 본래 신약의 기독교가 발생하기 오래 전 헬라세계에서 통용되어 왔다. 그 개념의 어원적인 고찰은 그것이 기독교와 아무런 연관성을 지니지 않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신약에서 이 개념어는 일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고대 헬라인들은 「神統說」(theogonia)를 쓴 Hesiodos와 같이 우주의 생성이나 신들에 관한 신화를 기술하는 이들을 '신학자'(θεολογος)라고 불렀다.

이런 우주생성론이나 신화들은 주로 운문의 형식, 즉 시(詩)로 나타났으므로 헬라 문헌에는 '신학자이면서 시인'(θεολογος και ποιητης)이라는 개념이 종종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신화들에는 대개 예언적 내용이 담겨져 있으므로 '신학자이면서 예언자'(θεολογοι και μαντιες)라는 용어도 자주 등장한다. 이렇게 '시인'이며 '예언자'라고 불리는 이들은 우주와 신들의 생성을 알려주며, 또 신들에 관한 신화를 얘기하므로 '신학자들'이라고 칭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Platon⁴⁾이나 Aristoteles⁵⁾ 같은 경우에도 '신들 혹은 신화들에 대한 시인들의 기술 내지 기술활동'을 '신학'(θεολογι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Aristoteles는 신학을 물리학(η φυσικη θεωρητικη)에 대립시켜 후자에게는 그 대

4) Platon, *Politeia* 379 a

5) Aristoteles, *Metaphysica* 1000a 9ff., 1071b

상을 '운동하는 것', 그 담지 형식은 로고스(λογος)로 하는데 비해 전자는 그 대상을 '운동하지 않는 것' (ακινητος)과 존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 (καριστος), 그리고 그 담지 형식으로 신화(μυθος)를 들고 있다. 그에 있어서 신학은 바로 제일 철학(prima philosophia)인 형이상학(形而上學)이었다. '신학'의 이러한 개념사는 Proklos와 같은 신플라톤주의 철학자들과 Varro와 같은 스토아 철학자들을 거쳐 교부들에게까지 이르고 있다.

Proklos는 Orphic신화를 '헬라신학'이라하고, Oracula Chaldaica를 '야만신학'이라고 칭하였다. Augustinus는 「De civitate Dei」 VI권 5장에서 Varro를 따라 신학을 신비적 신학(신들에 관한 신화를 다룸), 물리적 신학(신개념의 철학적 해석), 정치적 신학(제사 등 종교적 행위에 대한 국가적 규정을 다룸)으로 구분하고 있고(cf. 같은 책 IV, 27)⁶⁾, 또 Orpheus도 '신학자'라고 불렀다(같은 책 X VIII, 14). 그러나 교부시대에는 이러한 개념사적 전통과 더불어 점차 기독교적 의미에서도 이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를테면 Athanasius에게서는 '신학'은 교회적인 교의(Dogma)와 관련되어 있다.

Augustinus 자신도 헬라적 개념 외에 기독교적 의미에서도 사용했는데 그에 의하면 '신학'이란 인간의 구원에 관한 이론을 다루는 학문이다. 중세의 스콜라 신학에 와서 Thomas Aquinas는 신학을 'sacra doctrina' (聖論)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부와 중세 시대에 '신학'이라는 개념이 이미 오늘날과 같이 신학의 전 영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초기에는 신학은 삼위일체 교리와 같은 신론에 대해서, 그러다가 중세에 이르러 교의학의 전 영역에 대해

사용되었다. 종교개혁을 지나 17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성경주해(聖經註解)와 교회사(教會史)가 신학의 영역에 포함되었으며, 19세기에 실천신학이 신학의 한 고유분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신학의 개념사(概念史)는 탈피와 점진적 보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요한복음의 'logos(λογος)' 개념처럼 헬라사상 속에서 성장했다가 그 세속적 의미성을 벗어나고 기독교에서 사용되었고, 초기에 좁은 의미영역에서 시작하여 교의학의 영역으로 오늘에 이르러서는 결국 이론과 실재를 포괄하는 기독교의 전영역으로 보완 확대되었다.

이러한 개념사적 전통위에서 '신학'(theologia)을 정의해 본다면 신학은 기독교의 교리적 및 실천적 측면의 종합(summa christianae doctrinae et practicae)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앞서 서언적 논의에서 언급한 바대로 신학(θεολογια)은 신학적 체계(η θεολογια επιστημη)와 신학적 행위(θεολογια)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신학적 체계에 있어서 신학은 그 영역상 크게 성경신학(聖經神學), 조직신학(組織神學), 역사신학(歷史神學), 그리고 실천신학(實踐神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학적 행위에서의 신학이란 그 신학적 교의에 대한 신앙고백적인 자세, 또 성화(聖化)와 경건생활, 복음전도와 교회적 봉사 등 실천적 측면을 말하는 것이다. 이 행위로서의 신학의 성격을 정리해보면, 1) 신학은 성경과 분리되지 않는다, 2) 신학은 바른 믿음과 분리되지 않는다, 3) 신학은 인격과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 4) 신학은 교회와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신학은 먼저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야 하는 성경적 정초를 지닌다. 둘째, 신학은 학문적 사변이나 언어놀이가 아니라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므로 신앙고백적 성격을 지닌다. 셋째, 신학은

6) 이는 Eusebius에게서도 보인다. Eusebius, Praep. Evang. IV, 1

하나의 학문으로서 체계성을 지닌다. 네째 신학은 개인의 인격과 삶,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과 삶에 결부되므로 실천적 성격을 지닌다. 실천 없는 신학은 불완전 신학이요, 열매없는 신학이다.⁷⁾

이러므로 신학의 개념과 영역은 규명되었지만 그것의 전반적인 성격과 구성적 방법론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신학의 성격 규정과 구성 방식은 우선은 그 출발에 있어 natura(자연)와 ratio(이성), revelatio(계시), 그 강조점과 중심점에 있어서 text(말씀)와 context(상황), 그 구성적 및 기초적 행위에 있어서 신앙(πίστεως)과 지식(γινωσκεις)의 측면에서 상고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논의에서 우리는 신학의 이러한 측면을 기술해 보려 한다.

2. 신학에 있어서의 natura와 ratio, revelatio

신학의 출발과 구성적 요소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관계되어 있다. 교의학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목적론상과 방법론상으로 각각 일반계시 내지 자연계시(revelatio generalis et naturalis)와 특별계시 내지 초자연적 계시(revelatio specialis et supernaturalis)로 구분된다. 전자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온 우주에 모든 인간에게 주신 것으로 이를테면 자연적 환경과 인간에 주신 지·정·의와 같은 인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후자는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이 인류구원을 위해 주신 것으로 그 본래적 대상은 온 인류이지만 실제적 의미성의 대상은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다. 이 특별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질 수 있

는데 첫째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Canon)이다. 형식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해 우리(적어도 예수님 당시에 그 분을 체험했던 성도들을 제외한)에게 알려지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축으로 하고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다.

성경도 계시의 성격면에서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는데 한가지는 직접적 계시(revelatio immediata)의 측면이고 다른 한가지는 중개적 계시(revelatio mediata)의 측면이다. 전자는 성경 기자들이 받은 직접적인 영감적 계시이고 후자는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기록된 성경의 측면을 말한다. 이러한 계시는 신학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계시와 관련된 신학의 형성은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대별된다. 하나는 일반계시와 특별계시 둘 다에서 신학을 구성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계시의 불충분성을 인식하여 특별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신학의 형성을 표방하는 입장이다. 전통적 개신교와 복음주의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면서 성경만이 바른 신학(theologia vera)의 유일한 원천임을 주장한다. 그와 대립적으로 천주교의 전통적 신학, 계몽시대의 신학, 그리고 개신교권에서의 몇몇 신학적 입장(예컨대 Emil Brunner나 Paul Tillich같은 신학자들은 은총(gratia)과 자연(natura)의 두 길을 통한 신학을 얘기한다.

로마 카톨릭의 전통적 사상을 대변하는 중세 스콜라신학은 자연신학(theologia naturalis)과 계시신학(theologia revelata)을 말하면서 자연의 책을 통해서는(ex libro naturae) 자연적인 신 지식(cognitio Dei naturalis)을 지니고, 성경의 책을 통해서는(ex libro scripturae) 계시적 내지 초자연적 신 지식(cognitio Dei revelata sive supranaturalis)을 지니게 된다고 한다. 자연신학을 주장하는 이들은 대체로 인간이 하나님

7) F. Schleiermacher, *Kurze Darstellung des Theologischen Studiums*, Berlin 1811, Einleitung 는 실천신학을 '신학의 열매요 왕관' (Krone der Theologie)이라고 했다.

에 대한 생래적 지식(生來的 知識 *notitia insita*)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 지식이 한편으로는 양심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다른 한편으로 자연과 역사의 과정을 주목함으로 보충·확대해 간다고(*notitia Dei acquisita*) 생각한다.

자연신학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우리는 Anselmus와 Thomas Aquinas에게서 발전하고 근세 Descartes까지 이르는 신 존재 증명을 들 수 있다. 이 모든 신 존재 증명을 Kant는 본체론적 증명(*ontologischer Gottesbeweis*), 우주론적 증명(*kosmologischer Gottesbeweis*), 물리신학적 증명(*physiko-theologischer Gottesbeweis*)으로 집약해서 설명한다. Kant의 이런 논의에서도 잘 규명되지만 자연신학적인 신 존재 증명은 자연(*natura*)의 현상과 이성(*ratio*)의 추론에서 생긴 것이다. 그래서 자연신학은 Kant의 말을 빌리면 곧 이성신학(*theologia rationalis*)이다. Kant는 이러한 이성신학을 순수한 이성적 개념을 통해서 이루어진 선형적 신학(*transzendente Theologie*) 내지 이신론(理神論 *Deismus*)과 자연에서 이끌어낸 개념을 통해 전개시키는 자연신학(*naturliche Theologie*) 내지 유신론(有神論 *Theismus*)으로 양분한다. 그리고 다시 전자를 우주신학(*Kosmotheologie*)과 본체신학(*Ontotheologie*), 후자를 물리신학(*Physikotheologie*)과 도덕신학(*Moraltheologie*)으로 세분화시킨다. 결국 Kant가 말하는 선형적 신학이란 *ratio*에서 출발하고, 자연신학이란 *natura*에 근거한다.

신학의 한 입장은 이와 같은 자연신학을 계시신학 옆에 혹은 그 밑에 두면서 후자를 하나님을 찾는 위의 길, 전자를 아랫 길로 인정하며 신학의 양 날개를 얘기한다. 이러한 입장보다 과격한 입장도 있는데 이런 입장은 계시신학을 비합리적이고 신화적인 것으로 돌리며 배격하고 오로지 자율적 이성을 절대화하여 그 이성에 맞는 신학의 구

성만 주장한다. 「단순한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 ß en Vernunft*)를 쓴 Kant도 실천이성에 정초된 이성신학만 주장하고 나아가 그것에 기초한 이성신앙(*Vernunftglaube*)을 바람직한 신앙형태라고 내세운다.

전통적 개신교 신학과 복음주의는 자연과 이성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이기는 하지만 타락 후 전적으로 변질되어 그것으로 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아래로부터 가는 길이 전연 없다고 믿으며 오로지 위로부터 오는 길만 있다고 생각한다. 타락으로 변질된 자연과 이성, 그리고 양심이 희미하게 신적 존재나 절대자에 대한 이념을 가지거나 드러낼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말씀이 보여주는 참 하나님을 제시할 수 없다고 여긴다.

특별히, 신학의 중심과 의미가 단순히 신지식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속의 역사에 놓인다고 보므로 그러한 신학의 핵심은 오로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계시에만 있다고 본다. 성경을 제외한 지상의 그 어떠한 것도 신학의 구성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자연 신학을 주장하는 이들이 혹 그것을 통한 신적 존재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Pascal이 지혜롭게 피력한 바대로 '철학자의 신은 결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것' 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하지 않고 만나는 모든 초월적인 것들은 다 우상이다. *Solus Christus!!*, *Sola Scriptura!!*

신학은 오로지 계시적 내지 초자연적 신학(*theologia revelata sive supernaturalis*)이어야 하고 이러한 계시와 초자연성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종교개혁의 신학은 오직 성경(*sola scriptura*)에서 나오고 오직 성경 위에 서고 또 오직 성경을 지향한다. 그러나 성경에 기초한 신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완벽

한 지식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본체 자체는 인간의 인지력(認知力)에 들어올 수 없음을 얘기한다(고전 2:11).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알려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신학은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기초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관해 갖는 지식과는 달리 온전하거나 완벽하지 못하고 부분적이고 차용적인 지식에 불과하다. 하나님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지식을 원형(原型)의 신학(theologia archetypos)이라 한다면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차용의 신학(theologia ectypos)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첨언할 것은, 우리의 성경적 신학이 부분적이고 미약하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기 계시에 근거해 있으므로 옳으며 또한 인간 구원에 있어서 온전하고 충분한 지식을 제공하는 신학인 것이다.

3. 신학에 있어서의 text와 context

신학의 구심점과 신학 구성의 강조점이 되는 문제는 말씀(text)과 상황(context)이라 할 수 있다. 과거 Justin이나 Tertullian에서부터 오늘날 복음주의와 진보주의로 대별되는 한국 교회의 신학에 이르기까지 신학의 변천사는 말씀과 상황,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구심점으로 삼고 어느 것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그 형태를 변모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일부의 신학자들을 예외로 하고는 대개는 신학에 있어서 text와 context는 분리되거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님을 인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신학 구성 속에 바르게 조화?배열시키지 못하고 어느 하나에 편파적인 강조를 두어 다른 하나를 배제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대체적으로 볼 때 정통주의 내지 복음주의의 신학은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 중심의 신학을 구성한데 반해 진보주의 내지 자유주의의 신학은 상황위주의 신학을 형성하여 왔다. 전자가 text에서 context로 가는 길을 취했다면 후자는 context에서 text으로 가는 길을 내세웠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Jurgen Moltmann은 text를 강조한 정통주의 신학을 화석신학(Fossil Theology)이라 하고, context를 중시한 자유주의 신학을 카멜레온(Chameleon Theology)신학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한 적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Moltmann 자신의 신학이 이 양자에 있어 조화있고 균형잡힌 신학을 체계화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의 지적은 우리의 논의에서 한번쯤 인용해볼 만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Moltmann에 의하면 전통주의는 늘 말씀 그 자체에 대한 강조와 바울, 어거스틴, 칼빈같은 과거 신학자들의 사상에로의 복귀만을 주장하므로 시대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 신학을 표방하므로 그런 신학은 굳어버려 화석의 의미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자유주의는 말씀보다 사회 현실과 시대적 상황을 중시하며 늘 그것에 맞게 신학을 구성하므로 그런 신학은 text에 근거한 정체성(identity)은 잃어버리고 상관성만 지니므로 항변(恒變)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이런 신학을 배경에 따라 그것에 맞게 자기를 변모시키는 카멜레온 같다고 하여 그런 명칭을 붙여준다. Moltmann의 지적과 분석을 접어둔다 하더라도 우리는 text와 context의 문제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유형은 text만 강조하는 성경문자주의(Biblicism)의 신학이다. 이 유형은 신학이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이끌어낸 가르침'(doctrina ex verbo Dei exstructa)이라는 데서 한치의 양보도 없다. 물론 이것은 정당하고 맞다. 정통주의의 신학은 신학은 성경에서 나오고 성경으로 돌아가며 성경 위에서 있다고 본다.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을 주장한 칼빈은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원천으로 유일하며 온전하다고 했다.⁸⁾ 하지만 이런 '성경문자주의'의 신학은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하다. 이런 신학은 성령님에 대한 강조가 약하기 십상이고 또 상황과 현실에 대한 고려가 약하다. 물론 개인적인 삶의 적용은 어느정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사회적 및 역사적 정황과 현실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신학적 논의 속에 수렴이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신학은 성경에 대한 문법적이고 문맥적 연구는 하더라도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고려는 약하다. 말하자면 text연구에만 집중하므로 신학의 문자주의(文字主義)에, 그리고 text해석에만 주력하므로 자칫 신학의 사변주의(思辨主義) 내지 교리주의(敎理主義)에 빠질 염려가 있다. 실제로 신학이 text 중심이 되어 오로지 성경적 신학을 이루어야 하고 또 그것이 타당하고 바른 신학의 모습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이런 문자주의와 교리주의에 빠질 때 그것은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생명력이 없고 삶과의 접촉점이 없는 신학은 어떤 의미에서 죽은 신학이요, 그것은 실제에 있어 변화를 주는 아무런 역동력도 지니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특히 교회강단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문자와 문법으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8) J.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 vi, 1 ~ 2, vii, 1, III, xxi, 3

제2의 유형은 context를 중시하고 text를 도의시하는 신학의 형태이다. '현대 신학'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신학의 형태들은 이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유형은 앞서 지적한 바대로 text와의 단절이 일어나 신학의 identity가 상실되는지 아니면 text를 도입하지만 그것을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소위 contextualization(상황화)을 시도하므로 identity의 변질을 유도하는 형태이다.

Paul Tillich가 주저(主著)인「*Systematic Theology*」의 서문에서 신학을 상황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고 표방한 견해는 바로 이 입장을 잘 대변한 것이다. 본질과 실존이라는 철학적 용어를 빌린다면 제1유형이 본질을 강조했다면 제2유형은 실존을 표방한다. 따라서 현대의 실존주의의 신학은 이 유형에 해당한다. 그리고 지금 여기(nunc et hic)의 현실에 착안하고 착근(着根)하여 신학의 다양한 형태가 신출된다. 이를테면 지역 현실에 따라 소위 아프리카의 신학과 아시아 신학이 생기고, 인간 현실에 따라 여성신학과 흑인신학이 나타나고, 역사 현실에 따라 postmodernism 신학 같은 것도 생기고, 또 사회 현실에 따라 민중신학이니 해방신학이니 하는 것이 등장한다.

그밖에도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이름의 신학이 난무한다. 이 모든 신학은 어떤 현실적 context에 근거하여 그것 위에 자기의 존재 기반을 두므로 그런 context의 생성 소멸에 따라 신학의 운명도 좌우되는 것이다. 이런 context 중심의 신학은 형태상 밖에서 안으로, 또 아래에서 위로 향한다. 이 '아래와 밖으로부터의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것은 성경적 신학도 계시적 신학도 아니다. 물론 그것도 신학이란 얼굴을 통하여 드러나기 위해 성경 구절을 끄집어 들이지만 context와 그것에 대한 자기의 해석에 조화되는 성경 구절을 찾아 적용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성경의 내용을 그릇되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학은 실제에 있어서 성경과 전혀 무관한 일종의 사회적 내지 철학적 이데올로기로 전락하고 있다.

이상의 두 가지 유형은 사실 text와 context를 분리하여 어느 한쪽 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다. 물론 우리는 신학의 유일한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계시인 성경이요 따라서 신학을 이런 text 중심으로 형성한 첫 유형이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그런데 두 번째 형태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춘 신학이므로 그것이 결코 순수한 의미에서의 신학이라 할 수 없다. 성경을 떠난 것은 이미 신학이 아니다. 첫 번째 형태는 신학의 근원과 내용은 타당하여 신학적 identity는 지니고 있지만 context에 대한 고려가 신학적 논의에 수렴되지 않으므로 삶과 유리된 이론만의 신학으로 보여질 수 있다.

따라서 text와 context가 분리된 유형이 아니라 이 양자가 조화된 신학이 제3의 유형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양자의 조화에 있어서도 Peter Berger의 귀납적 신학(歸納的 神學)처럼 context에서 text적인 내용을 찾거나 거기서 text로 올라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방식은 성경적이 아니라 Platon的이라 할 수 있다. text와 context의 바른 조화를 통한 신학의 제 3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첫째, 신학의 기초와 원리, 그리고 내용의 근간이 오로지 text인 성경에 놓여야 한다. 둘째, text인 성경이 개인적·사회적·역사적 현실의 영적 context를 분석하고 조명하게 해야 한다. 셋째, text가 context속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게 해야 한다. 넷째, context가 지니고 있는 윤리적·영적 측면과 성격을 규명하여 text인 성경에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이 제3의 유형은 text - context - text의 원환 형태를 띤 신학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주의점을 환기시킬 수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다음의 두 가지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text 중심의 신학이라 해도 그 text, 즉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대표적으로 Karl Barth를 예로 들면 그의 신학은 19세기의 context 중심의 신학을 차단하고 text 중심의 신학을 표방했던 것이다.

Barth의 신학적 사색은 Schleiermacher의 종교적 감정에 기초한 감정의 신학, Ritschl과 Harnack의 윤리적 신학같은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에게 탈취당했던 신학의 주제와 관심을,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려 놓았다. Barth 신학이 신학적 주제와 관심의 방향전환을 일으킨 것은 신학사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가 이해한 text, 즉 그의 성경관은 그의 신학의 오류를 미리 보여준다. 그는 성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각시켜 이 후자 속에 전자를 포함시킨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유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즉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das offenbarte Wort Gottes),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das geschriebene Wort Gottes), 그리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das verkündigte Wort Gottes)이 그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성경, 설교라고 한다.⁹⁾ 이런 주장은 언뜻 보기에 기발해 보이지만 하나의 어설프고 억지같은 논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삼위 하나님에 유비적일 아무런 이유나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하에 결코 동등하게 올 수도 없는 것이다. 예수님을 logos라 하는 것,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은 그 담지하고 있는 내용상 매우 상이한 것이다.

9) K. Barth, *Kirchliche Dogmatik*, I, 2, S. 124f.

하여튼 이런 억지 주장과 함께 Barth는 성경에 대해 한편으로는 정통주의의 축자영감설을 비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사학파의 역사비판적 방식도 거부하면서 제3의 길로 소위 '역사비판적 영감설'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성경관은 신구약 성경이 그 원본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이라는 견해를 비판한다. 그에 의하면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자유를 지닌 하나님께서 완료된 계시로 간주되는 성경에 구속받으리 없다고 한다. 만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기 계시가 다되고 그로 인해 은폐되지 않는다면 그 계시는 인간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Barth는 계시의 현재성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에 의하면 계시는 늘 현재에 일어난다. 하나님의 계시행위에는 단순과거와 단순미래라는 것은 없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이 현재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될 뿐이라고 보았다.

Barth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Die Bibel ist Gottes Wort)라고 하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Die Bibel wird Gottes Wort)라는 주장을 되풀이한다. 굳이 '이다' (ist) 라고 써야한다면 주석적으로 작게 써야 한다는 충고도 덧붙이고 있다. 이런 관점 하에서 실상 그는 앞문으로 쫓아낸 자유주의를 뒷문으로 다시금 받아들이고 있다. 결국 그는 성경의 여러 부분이 과학적으로 타당하지도 않다고 보았으며 또 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생각지 아니했다. 말하자면 그는 성경에 대한 고등비평의 결과들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따라서 Barth가 말한 text 중심의 신학은 text에 대한 견해의 오류로 바른 신학의 모습이 아닌 것이다. Bultmann이나 그 이전의 종교사학파는 Barth보다 더 심하게 성경을 그릇되이 보고 어설픈 역사비판적 논리의 메스를 가하고 있다. 성경을 단순히 일개의 종교적 문헌으로 본 이들의 text관도 그릇된 신학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그밖에 천주교는 text 중심만의 신학을 내세우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text를 말할 때 그것은 신구약 66권의 정경(正經, Kanon)에 머물지 않고 가경(假經)까지 포함하므로 순전한 성경적 신학이 거기에서 나올 수 없음은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text 중심이라 할지라도 text인 성경의 성격과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판이한 신학이 나오는 것이다.

두 번째는 context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학적 논의 속에 수렴한다고 해도 바른 신학은 지금 여기의 현실성에만 머물지 않는다. 역사가 과거와의 대화라면 신학은 미래의 종말, 그리고 종말 이후와의 대화라고 할 수 있다. 바른 신학이 지니는 context는 지금 여기의 현재적 현실의 context만 아니라 종말적 현실과 초월적 현실의 context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종말적 지평과 역사의 피안에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각이 없는 신학은 자칫 현실적 이데올로기 전락하기 쉽고 또 근시안적 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항목의 결론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다. 신학이 하나님에 관한 것, 인간의 구원과 역사의 흐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과 구원에 관한, 또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한 유일하고 완전한 진리이다. 그것은 성령에 의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권위를 지닌다. 성경의 권위에 대해 사도와 교회 전통이 가르쳐온 외적 기준(criteria externa)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내적 증거(testimonium internum Spiritus Sancti)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신학의 원천과 내용의 재료, 그리고 그 궁극적 준거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다.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인 성경에 출발점을 갖지 않고 어떤 현실적 context에서 발원한다면 그것은 내재적 신학

(immanent theology)이 될 것이며 바른 신학의 유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신학이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 할지라도 현실의 context를 신학적 논의에 수렴하여, 결국 text가 context를 분석, 비판하여 조명, 교정해야 할 것이다. 신학에서는 정통교리(orthodoxia)만 중요한게 아니라 정통실천(orthopraxis)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신학함'의 측면이 먼저 신학적 논의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신학함'은 현실적 context없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것과 아울러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Luther와 Calvin이 개혁을 실행하고 오늘날 그들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가 교회와 신학의 지속적인 개혁을 주창하지만 그것은 결코 context에 의한 개혁이 아니라 text에 의한 개혁이요, text로 더 충실히 돌아가는 개혁이며, 또 context에 대한 text의 보다 바르고 깊은 분석과 조명으로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 아무튼 신학에 있어서의 text와 context의 문제에 대한 결론은 17세기 초 J. Gerhard가 말한 신학의 정의에 잘 나타난다. 이 정의에서 그는 신학의 원천으로서의 text와 그것의 실천적 측면의 context를 함께 고려했을 뿐 아니라 구원론적 및 종말론적 측면도 포함시키고 있다.

"Theologia est doctrina ex verbo Dei exstructa, qua homines in fide vera et vita pia erudiuntur ad vitam aeternam"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으로 인간을 가르쳐 참된 신앙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며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교훈이다).¹⁰⁾

10) J. Gerhard, *Loci theologici*, 1610f. Proem. 30.

4. 신학에 있어서의 신앙(fides)과 지식(scientia)

A. 신학은 본질적으로 말한다면 그 구성면에서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게시에 대한 신앙(信仰)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의 학문으로서 갖는 학문성(學問性)이다. 신학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존립하기 원한다면 그것은 모든 학문이 갖는 논리적 명료성과 합리적 체계성을 지닌 지식의 한 형태로 존재해야 한다. 또 신학이 단순히 하나의 종교적, 사변적 이론이나 지적 노름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다른 학문과는 다른 신앙적 작용이 수반되어야 한다. 신학의 구성에 신앙적 작용이 수반되는 것에 신학의 신학됨이 있고 또 여타의 학문과 구분되는 신학의 독특성이 놓인다.

사실 서로 다른 모든 학문은 가능한 한 그 학리적 사유작용과 학문적 체계 수립에 있어서는 신앙적인 것을 배격하고자 한다. 물론 기독교 철학자들이나 근자의 과학철학자들은 어떤 학문을 하는 어떤 학자의 어떤 학리적 사유의 근거에도 반드시 종교적 동인 내지 세계관적 패러다임(paradigm)이 있다고 하지만, 엄밀한 학문을 하고자 하는 이들은 그 학문적 행위와 작업에서 신앙이나 신념을 배제한 채 선명한 논리와 명확한 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말하자면 이들은 엄밀한 지식(知識, notitia)만이 학문(學問, scientia)을 형성한다고 본다. 서구에서는 계몽주의시대 이래로 이러한 엄밀한 지식으로 형성된 학문이 점차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삶과 우주의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다는 식으로 등장했다.

이런 학문은 근대사상의 공리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근대의 서구 신학은 이러한 학문 교조주의(教條主義, Dogmaticism) 내지 학문

우상화(偶像化, idolization)의 거센 도전 앞에 굴복하여 신앙을 배제한 엄밀한 학(學)으로서의 신학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 근대 신학자들은 이성적 사유를 통해 순수한 사변신학(思辨神學)을 제창했든지, 아니면 말씀계시인 성경을 다루어도 그것을 순수히 사변적으로 다루어 합리적 틀 속으로 억지로 집어넣음으로써 오류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다. 성경의 근본적 내용과 복음의 기본적 원리들은 단순한 학리적 이성만으로 이해, 수납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은 성경의 이런 내용을 삭제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그릇되게 해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근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세계뿐 아니라 성경과 기독교의 복음진리도 이성의 심판대 앞에 세워 난도질함으로, 이러한 이성애 의해 포착되고 증명될 수 있는 것만 '지식' 내지 '진리' 로써 주장했던 것이다. 결국 이들은 성경의 영감설을 부인하게 되었고 성경의 권위(auctoritas)를 하나님의 계시의 측면에서 보지 않고 성경 각 권을 '합리적 진실성'과 '역사적 신빙성'의 차원에서만 인정하려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인간이 기록한 하나의 일반적 책으로, 또 신학을 하나의 일반 학문으로 전락시켜 성경에서 계시성(啓示性)과 초합리성(超合理性), 신학에서 신앙적 성격을 소멸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대로 신학의 학문적 독특성은 그것의 신앙적 성격의 수반에 있다. 그러면 신학에 있어 신앙과 지식은 상호충돌이 되지 않는가? 그 양자는 상호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먼저 우리는 신학에 있어서 신앙은 하나님이나 다른 초월적이고 초합리적 문제에 해당하고 지식은 경험적이고 합리적인 사실에 관계한다는 이분법(二分法, dichotomy)을 버려야 한다. 성경의 진리 가운데 우선 합리적 사유와 배치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성만으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신앙이 그 근거에 놓여야 그것이 참 신학적 지식이 되는 것이다. 이

때 '참' 신학적 지식이란 그것이 죽은 신학이 아니라 산 신학이란 뜻이다. 신학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적 사유만으로는 되지 않고 신앙을 배경으로 한 이해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볼 때 신앙만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하나님과 영계에 대해서도 지식의 중요한 방편과 근간이 되는 경험의 가능성이 있게 된다. 영계에 대한 신비적 경험은 우선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개별성과 주관성에만 머물지 않고 성경 속의 가르침과 공동체적 경험과 함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변하게 되고 따라서 신학적 지식 수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 하나만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그 속에는 정적(情的), 의지적(意志的) 요소와 함께 지적(知的) 요소가 들어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전인(全人)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의 전통, 특히 Melancthon과 Luther의 신학에서는 신앙의 세 단계로 지식(notitia = credere Deum), 인정(assensus = credere Deo), 신뢰(fiducia = credere in Deum)를 말하므로 지식을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두고 있다.¹¹⁾ 신앙 속에는 신앙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지적 이해(知的 理解)가 반드시 수반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 이해를 수반할 그 때 신앙은 참 신앙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또 그의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지적 이해가 없다면 그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얽이 없는 믿음은 맹신(盲信)이요, 망신(忘信)이요, 미신(迷信)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초합리적이고 신비적

11) Quenstedt. Theol. did. polem., 3 Aufl. 1676, IV. 282f.

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성의 접근을 용이케 하지 않는 진리들이 있음을 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신인성 문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삼위일체론,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책임의 관계 등등이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이성이 신앙의 인도에 따라야 한다.

하여튼 우리는 이러한 논의에서,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해 없는 신앙도 신앙 없는 이해도 아닌 '신앙적 이해' (intellectus fidei)와 '이해적 신앙'이 중요함을 알게 된다. 말하자면 신앙과 이해의 온전한 합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신학과 일반 학문이 신앙적 요소를 빼고 나면 같은가 하는 점이다. 말하자면 신학에서의 이성의 작용과 일반 학문에서의 이성의 작용의 동일성에 관한 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신학에서의 이성은 신앙과 성령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그러면 이러한 통제 속에서 이성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일반 학문에서의 학리적 이성이나 신학에서의 신앙적 이성은 다같이 자율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신학을 하는 신앙적 이성은 일반 학문에서의 이정보다 더 직접적으로 통제를 당하는데 그것은 신앙에 의해서이다. 일반 학문을 하는 중생되지 못한 자연적 이성(自然的 理性)은 학리적 작용에서 산출적(産出的)이고 구성적(構成的)인 기능을 한다. 반면에 신학과 기독교적 학문을 하는 중생된 이성은 학리적 작용에서 해석적(解釋的)이고 분석적(分析的)인 기능을 한다.

일반 이성이 산출적이고도 구성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주어진 진리없이 스스로 실재에 대한 지식을 만들어가고 구성해 간다는 뜻이다. 그리고 중생된 이성의 해석적, 분석적 기능이란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 주어진 진리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적용해 가는 작용을 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일반 이성은 그것의 지식 구성의 방법론

에서 해석과 분석을 하고, 중생된 이성은 구성력을 지니고 있으나 전반적 기능이 이런 특징을 지닌다는 뜻이다. 또 신앙은 신학의 전 내용과 그것의 구성에 필수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면서 동시에 신학자 자신의 주체적 기능에도 큰 작용을 한다. Luther나 Calvin같은 종교개혁자들에게 고백(confessio), 기도(ortio), 명상(meditatio) 등의 신앙적 행위는 논박(tentatio) 등과 함께 신학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B. 과거 유럽의 기독교 사상사와 일반 철학사에서 이 신앙과 지식, 신앙과 이성의 관계는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한 과거의 논의는 대략 크게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신앙과 이성을 대립적인 관계에 두려는 입장과 신앙과 이성을 어떤 식으로든지 조화시켜 종합해 보려는 입장으로 대별된다. 전자에는 또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성을 배제하고 신앙만 세우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을 배제하고 이성만을 세우려는 입장이다. 후자도 다시 두 가지 태도로 다시 나뉘지는데 첫째는 이성을 우위로 하고 그것을 신앙과 조화시키려는 입장이고 둘째는 신앙을 우위로 하고 그것을 이성과 조화시키려는 입장이다.

1) 이성을 배제하고 신앙만 세우려는 입장 : '불합리하므로 믿는다(credo, quia absurdum)' 라고 한 Tertullianus 등의 입장으로 신앙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성을 전적으로 배격하려고 한다. 이들은 신앙의 내용을 이성에 의하여 탐구하여 깨달음을 구하려는 모든 시도를 공허한 것이라고 비난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확신으로서의 신앙이 전부라고 주장하는 신앙주의(信仰主義, fideism)를 표방한다.

2) 신앙을 배제하고 이성만 세우려는 입장: 우선 신학 바깥에서는 계몽시대의 사상, 근세의 독단적 합리주의, 유물론과 무신론, 현대의 인본주의적 세속주의 등이 있는데, 이 사상들은 신앙을 미신적이며 허위적인 것으로 배격한다. 여기서는 이성이 절대화되고 모든 초자연주의는 거부된다. 신학의 영역에서도 독단적 이신론(理神論, Deism), 근현대 자유주의적 신학 등이 있다.

3) 이성을 우위에 두고 그것을 신앙과 조화시키려는 입장: 여기서는 신앙을 배격하지는 않으나 이성에 부딪히는 신앙의 비합리적 요소, 신앙 대상의 초월적 성격을 제거하려고 하거나 또는 신앙의 신비를 철학적인 지식(*gnosis*) 속에 해소시켜 버리는데 이 후자는 영지주의(靈智主義, Gnosticism)가 잘 표방한다.

4) 신앙을 우위에 두고 그것을 이성에 조화시키려고 하는 입장: 이 입장은 엄밀히 보면 또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하나는 신앙과 이성을 병치(並置)시키면서 둘을 조화하려는 입장이다. 이것은 은총과 자연의 상하(上下) 도식을 내세운 스콜라신학(Scholasticism)과 그 이전의 Justin, Clemens, Origen 같은 교부들의 견해이다. 이 견해의 문제점은 우선 우리가 신앙으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듯이 이성으로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이신론의 태도이다. 그리고 이들의 관점에는 인간 이성의 전적 부패를 인정하지 않아서 이성의 근본적 변화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이 입장은 결국 신학의 내용을 철학적으로 구성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런 견해와 달리 우리 개혁주의적 입장은 이성만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찾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성의 타락을 믿고 그것이 증생함을 통해 변화되어 신앙에 의해 통제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변화된 이성은 신앙에 있어 하나의 기본

적 요소이면서 신앙을 깊게 하고 또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신학을 구성하고 체계화한다. 이러한 전체의 단서를 제일 먼저 제공한 이는 어거스틴이라 할 수 있다.

한때 이성과 신앙을 대립적으로 본 마니교의 '이성적 종교'에 빠졌다가 회심(回心)한 어거스틴은 종종 '신앙에 의한 이성의 순화(純化)'를 얘기했다. 그는 「자유지론」(*De libero arbitrio*)을 쓰기 시작하면서 또 3년 후에 쓴 「신앙의 유용성」(*De utilitate credendi*)에서 마니교의 이성주의(理性主義)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어거스틴이 빠져리게 자각했던 것은 현실의 인간 이성이 연약하고 병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성이 종교적 진리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는 입장을 자기 이성의 상태에 대한 무지(無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을 두고 어거스틴은 '이성에 대한 미성숙하고 빛나간 사랑'¹²⁾이라고 꾸짖었다. 그가 본 타락한 인간이성은 허위와 미혹의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이였다. 이성이 미혹에 빠지게 된 것은 우리가 감각적 사물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그것에 집착하여 또 스스로 만들어 낸 관념이나 환상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된 근원은 어디 있는가? 어거스틴에 의하면 이런 정신의 병과 허약성의 근저에는 사악성(邪惡性, *iniquitas*)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과(罪過)라 한다.

그는 결국 이성의 병들을 인간의 타락에서 찾고, 이성이 사랑해야 할 하나님과 영혼(*deum et animam*)¹³⁾을 합당한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성을 허위와 사악성에서 해

12) Augustinus, *De Trinitate* I, 1, 1

13) Augustinus, *Soliloquia* I, 2

방시켜 순화시키는 것은 신앙이다. 따라서 순화란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참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다. 신앙은 우리들의 정신을 치유하고 정화시킨다. 이렇게 순화된 이성은 우리가 진리에 도달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일반이성으로는 진리를 발견하기에 너무 연약하다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성경의 권위와 그것에 대한 신앙의 확실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그는 「*Contra Academicos*」 III 20, 43에서 *auctoritas*(권위) - *credere*(신앙)와 *ratio*(이성) - *intellegere*(사유작용)의 병행개념을 얘기한다. 그는 무기력한 철학에 대해 성경의 권위를 대립시킨다. 그러면서 인간의 인식과 의지는 오로지 권위에 자기를 맡길 때만 바른 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¹⁴⁾ 이 권위는 신적 권위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며, 성경이 바로 이 권위를 지닌다고 했다.

그러면 이제 신앙과 신앙에 의해 순화된 이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는 이 문제를 주로 「*De Trinitate*」에서 취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이사야 7장 9절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거듭 되풀이한다. 이 구절을 가지고 어거스틴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신앙이 지식이나 이해를 앞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요청 또는 충고이고 둘째는 신앙은 그 전체가 완결된 것이 아니라 어떤 고차원의 지식과 이해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대한 그의 결론은 신앙이 고차원의 이성적 이해로 전화(轉化)되는 데에 신앙의 완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입장은 한편으로는 Anselmus나 Thomas Aquinas에게 영향을 주어 ‘이성에 의해 완성된 신앙’을 내세우게 했지만 어거스틴의 본래 의도는 우리가 이해하는 바대로 신앙의 지식이 깊어짐을 뜻하는 것이다. 이성에 의해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속에 이미 지적 요소가 있는 것이다. 즉 여기서 어거스틴은 ‘지식에 넘치는’(엡 3:18) 깊은 신앙으로 들어감을 말하고자 했다. 이것은 신앙이 깊을수록 하나님에 관하여, 영적 진리에 대하여 더 깊게 알아간다는 의미이다.

서구 사상사에서는 어거스틴 이래로 신앙과 이성이 또 다시 분리되기도 했는데, Duns Scotas, William Occam, 그리고 Luther 등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이성을 배격했고 Descartes같은 이는 이성을 위해 이들을 분리시키려고 했다. 우선 Occam은 이성은 신앙의 진리를 탐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는데 그 때 그는 ‘중생된 이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같이 보인다. Luther는 스킨라철학의 ‘이성에 의해 완성된 신앙’을 ‘웨번론자의 가르침’, ‘신성모독’, ‘사탄의 모략’이라고 공격했는데, 그것은 그의 눈에는 신앙을 물리치고 선행에 의지하자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성을 창기(Hura)라고 한 Luther는 그의 유명한 「갈라디아 주석」(1535)에서 이렇게 말했다. : “그런데 신앙은 전 세계와 전 피조물을 가지고도 죽일 수 없는 이성을 죽인다. - 신앙은 확실히 이성에 대해 싸워 승리를 거두었다. 이리하여 신앙은 신의 가장 맹렬하고도 위대한 원수를 죽여 제물로 썼었다”(3장 6절 주석).

Luther보다 1세기 뒤에 나온 Descartes의 이런 입장은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신앙’(fides non quaerens intellectum)을 뜻한다. Descartes를 비판하던 Pascal은 ‘내가 철학하는 것은 철학을 조롱하기 위함이요, 또 가장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

14) Augustinus, *De ordine* II 5, 16 ; II 9, 26f.

고 했다. 그리고 후대의 Kierkegaard는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박는 것' 이라고 하면서 신앙과 이성을 대립적으로 보았다. 현대의 실존주의자 Karl Jaspers는 우리가 의미하는 신앙과는 의미가 조금 다른 신앙을 얘기하지만, 일단은 '철학적 신앙' (der philosophische Glaube)을 말함으로 신앙과 이성의 새로운 통합을 운위한다. 그에 의하면 이성의 가장 초월적인 존재양식이 바로 신앙이다. 그는 비신앙적 이성과 신앙적 이성을 구분하여 전자는 대상(Gegenstand)을 파악하고, 후자는 포괄자(包括者, das Umgreifende)를 파악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 귀결은 비신앙적 이성은 허무주의(虛無主義)에, 그리고 신앙을 근거로 한 이성은 신앙에 놓인다고 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논의의 결론은 신학의 구성과 본질에 있어 신앙과 학문성은 필수적 양면성으로 신앙은 그 근거를, 이성은 그 수단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학문성의 지식을 이루는 것은 일반 이성이 아니라 중생된 이성이며, 이 중생된 이성은 지식의 산출적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해석적, 인식적 기능을 지닌다.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계시인 성경에 대한 신앙에 의해 통제받고 성격 지워진 중생된 이성의 체계적 인식이며 또한 성도 개개인과 교회적 공동체적 신앙고백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신학은 무엇보다 두가지 구성요소를 갖는데, 하나는 성경이요, 다른 하나는 성령님이시다. 그런데 성령님의 교과서는 성경이므로 철저히 성경에만 기초하면 그것은 바른 신학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신학을 할 때에는 철저히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함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동성이 약하게 될 것이다. 신학은 '은혜와 진리' (요 1:14), 성령님과 성경으로 충만해야 한다.

II. 신학함의 길

1. 신학의 내부적 목적(內部的 目的)

신학은 이중적 목적을 지닌다. 신학은 "신앙의 학문", 즉 '신학(信學)' 이기 때문에 그것의 목적은 이 신앙과 관련되어 전개된다.

신학의 첫 번째 목적은 신앙과 신앙인에 대한 것이요, 그것의 두 번째 목적은 불신앙과 불신자를 위한 것이다. 신학이란 학문의 존립성이 영역적으로는 신앙인과 교회에 놓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목적 가운데 전자를 내부적 목적(內部的 目的), 후자를 외향적 목적(外向的 目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학은 그것에 맞는 기능(機能)을 지니고 있다. 기독교 신학은 바른 기능을 지녀야 바른 목적을 제대로 성취할 수 있고, 또 바른 목적 수행을 위해 바른 기능을 소유해야 한다. 기독교 신학이 신자와 교회에 대하여 갖는 기능은 외부적 기능과는 달리 그것의 대상이 이미 신자로서 복음의 의미와 성경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런 전제 위에서 신학은 기초적인 작업보다 진전된 과제를 위해 작용하는데, 이를테면 교리를 체계화시키는 것이라든지, 또 기독교 세계관과 학문을 위한 초석(礎石)을 제공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신앙교육과 교리교육 등을 하기 위함이다.

1) 신학의 내부적 목적가운데 첫번째는 교리체계화인데 이것은 신학의 교의적 기능, 구성적 기능(構成的 機能)이라 할 수 있다.

이 기능은 신학의 가장 일차적이고도 근본적인 기능으로, 여기서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분석 연구하여 항목별로 조직화 내지 체계화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 체계화 작업에는 ① 성경 말씀 위의 철저하고도 온전한 정초, ② 전통적 교리에 대한 수정과 보완, ③ 교회적 필요에 따른 교리적 체계의 확대 내지 기존교리의 보완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작업에서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은 성경에 따른 교리의 항상적인 개혁(*doctrina semper reformanda*)이다.

성경은 영원하고 불변적이지만 신학이 구성하는 교리는 성경을 통해 부단히 반성되고 검증되고 개혁되어야 한다. 성경은 신학의 원천이요 기초이면서, 또한 그것의 잣대요 시금석이요 거울이다. 이러한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Tillich와 같은 실존주의적 상황주의 신학자들이 읊조린 것처럼 상황(*Situation*)을 따른 재구성이 아니라 부단히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는 개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신학의 이러한 본문 회귀성은 시대적 요청과 교회적 필요들에 대한 성경적 답변을 가져오는 생산적인 것이어야 한다.

기독교신학은 성경 속에 자기의 한계를 설정한다. 성경은 신학의 한계(限界)이다. 이 한계를 넘어 지적 호기심과 교리적 논쟁에 기초한 비성경적(非聖經的), 탈성경적(脫聖經的), 초성경적(超聖經的)인 이성적 사변은 신학의 탈동질성화(脫同質性化)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학의 성경 중심성을 강조할 때 우리는 성경만이 절대성을 지니지, 신학의 교리적 체계가 절대화될 수 없음을 본다. 로마 카톨릭은 교리적 체계를 성경 위에 돕으로 성경을 신학의 도구로 만들었다. 중세의 로마 카톨릭은 철학뿐 아니라 성경도 신학의 시녀(*ancilla theologiae*)로 전락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신학은 구속성이 없고 성경만 절대성과 구속성을 지닌다는 논리를 기성 정통교회의

성경적 교리와 교리중심적 신앙 행태를 무조건 백안시하고 교리와 신학의 포기 내지 배격, 또는 성경에 대한 임의적, 주관적 해석을 방조하고 조장하는데 변명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우리의 논지는 결코 교리에 대한 무시나 평가 절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구속성과 절대성을 부각시킴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신학자들이나 일반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지 모른다. 즉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것, 환언하면 정경(政經, Canon)을 만들고 성경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바로 신학이 아니냐고. 그런 질문은 가능하고 또 그런 항의도 일면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때 신학은 단지 도구로만 쓰이는 것이다. 전적으로 타당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의 이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은유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민이 여러 후보자 가운데 일인(一人)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지만, 선출한 후에는 그의 권한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에 따르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바르고 온전한 신학의 입장이고 그릇되고 빛나간 신학은 선출해 놓고도 그 전적 권한을 인정하지 않거나 불순종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아예 선출과정 자체에도 부정의 시비를 거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Wittgenstein의 '사다리' 비유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신학은 사다리로서, 그것을 통해 "성경이란 지붕"에 올라가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지붕에 올라가면 사다리는 불필요하다는 비트겐슈타인의 예와 달리 신학은 성경의 가르침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그 존재의의는 늘 있다고 할 수 있다. 성경이 신학보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바른 신학을 통해 성경을 바로 보고 성경의 교훈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 신학은 성경과 우리가 바른 관계 정립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하여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성경과 신학의 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신학의 이러한 교리 체계화 기능에는 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 중 한 가지는 하나님은 성경처럼 영감 주시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교회의 역사와 교리의 역사에 간섭의 손길을 베풀었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중요한 복음의 교리가 확정된 교대의 여러 공의회(公議會)들에서도 개인의 심령은 물론 전체 흐름에 간섭하셨음이 분명하다.

이러하면 주후 325년 Nicea공의회 때 하나님은 Arius 이단의 공격에 대한 Athanasius 집사의 고투에 있어 당시 교회의 승양을 받으면서 에집트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하던 사막의 교부 성 Antonius를 보내 지원하게 하므로 정통교리가 승리케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신자와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도우시듯이 그들이 믿고 배우는 교리가 계속적으로 결길로만 가도록 방치해 두시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항상 개혁되어가는 교리”를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 정통교회를 통해 내려오는 교리들에 대한 신뢰감을 지녀야 한다. 또 개혁만 하는 것이 나리 부족한 신학, 불충분한 신학을 보충하는 사명도 가져야 한다.

또 다른 한 가지 문제는 신학적 구성체계의 순서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신학은 성경신학, 이론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의 순으로 전개되지만 이론신학의 교리적인 측면은 구속사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독교 교리는 대부분의 전통방식에 따르면 신론에서부터 종말론으로 전개되는데 그 순서는 구속사적(Ordo Salutis)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학의 교리체계화에 역사성이 도입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신학이란, 결국 “구원의 과정” 내지 “구속의 가르침”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신학자들 가운데 간혹 이런 순서에 반기를 드는 이들이 있다. Karl Barth 같은 이는 창조부터 종말까지 지나치게 기독

론 중심으로 전개했고, 또 다른 이들은 인간론에서부터 교리를 출발시킨다. 또 비슷한 순차를 보이지만 삼위일체의 방식 등으로 전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대로 성경이 구속사를 얘기하고 또 그것에 따라 전개되듯이 교리도 그렇게 될 때 성경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것이 될 것이고 또 신학으로서의 보다 더 충실한 모습이 될 것이다.

2) 신학의 내부적 기능 가운데 두 번째는 기독교적 인생관과 세계관, 그리고 사상과 학문의 초석을 제공하는 기능이다.

신학은 모든 기독교적 행위와 삶의 기초를 이룬다. 물론 성경이 이런 역할을 하지만 바른 신학은 이 하나님의 말씀계시를 조직적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집약적으로 제시한다.

바른 신학은 특히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 것이므로 성경의 구절을 단편적 내지 일방적으로, 또는 임의대로 해석하는 것을 막으므로 성경의 본 뜻을 바로 전해줄 수 있다.

기독교인의 생활은 신비적 체험이나 도덕적 교훈, 또는 공동체적 교제에 근거하지 않는다. 만일 이러한 원리 위에 선다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신비주의나 인격 수양, 또는 친목적 삶의 수준에 머무르고 말 것이다. 기독교 인생관과 세계관은 바른 신학 위에 정초한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서 바른 신학이 나오고, 이 바른 신학에서 기독교인 생활관과 세계관이 나온다. 신학은 우리의 신앙자세와 사고방식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해주고 방향을 잡아준다.

우리는 그릇된 신학에서 그릇된 신앙 행태들이 표출되는 것을 많이 본다. 이를테면 지난 세기 말의 소위 사회복음주의와 낙관론적 진보신학, 그리고 60년대 이래의 참여신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노력으로 역사 속에 온전히 입한다는 생각으로 기독교의 피안성(彼岸性)과 내세성(來世性)을 깡그리 부인하고 신자들이 하여금 기도와 선교보다는 투쟁과 사회개혁의 방향으로 몰아갔던 것이다. 역으로 지난날의 세대주의(世代主義)신학과 근자의 소위 “임박한 종말”의 신학을 외치는 자들은 성도로 하여금 현실도피적 내지 분리주의적 세계관을 갖도록 하며 그들이 결국 반문화적 경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현실적 삶을 포기 내지 방관하도록 이끌었던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런 종말론의 해프닝을 벌인 대표적인 종말론적 유사 종파는 그들이 주장하는 휴거가 무위(無爲)로 끝나자 일간지 광고를 내어 이제는 웨스트민스터 신조로 돌아가겠다고 고백했다. 정통신학을 무시했던 입장에서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것이다.

임박한 종말론주의자들이 일으킨 이런 사건들은 신앙을 환상이나 주관적 계시, 직관적 느낌이나 심적 깨달음을 강조한 데에서 기인하는데, 타락은 인간이 이런 특이한 현상에 약함을 보여주고, 또 이런 약한 부분을 아는 사탄이 영적 혼란을 위해 이런 방식으로 성도와 교회에 침투하는 것이다. 일언이 폐지하면 사회참여 신학이나 종말론적 도피행각은 결국 바른 신학에 기초해 있지 않음에서 나오는 필수적 결과들이다.

그 유사종파가 돌아가고자 한 웨스트민스터신조의 요리문답의 첫 가르침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가르치므로 신학과 성도의 삶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일어난 기독교 세계관운동도 전통적인 이원론적 신학의 잔재에서 나온 이원론적 삶을 청산하고 신앙과 삶에서, 내세와 현세에서, 영과 육에서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차등 없는 온전한 삶을 영위하려는 것으로 이것은 바른 신

학이 신자의 바른 생활을 이끈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다.

신학은 또 학문을 위한 초석을 제공한다. 신학의 이러한 기능은 세계관이나 인생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교리의 여러 측면은 직접 다양한 학문영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신학이 세계관을 통하여 학문에 영향을 주는 것은 Dooyeweerd를 위시한 화란의 기독교철학자들이 흔히 얘기해온 종교적 동인(動因)에서인데, 그들은 고대 동방의 사상과 학문에서는 차안(此岸) - 피안(彼岸)의 동인이, 고대 회랍에서는 형상(形相) - 질료(質料)의 동인이, 중세 유럽에서는 자연(自然) - 은총(恩寵)의 동인이, 그리고 근세에 이르러서는 자연(自然) - 자유(自由)의 동인이 지배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반적 내지 세속적 동인에 대해 기독교 신학은 창조 - 타락 - 구속이라는 성경적 동인을 제시하여 사상과 학문의 기본 틀을 제공한다. 일반적 동인은 인간이 자기 경험과 사유에서 찾고 형성한 것인데 비해 기독교신학이 제공하는 동인은 하나님의 말씀게시에 근거한다.

물론 일반학문에서는 객관적 학문 구성을 위해 일종의 주관적인 종교적 내지 세계관적 동인을 거부하든지 부인하려고 한다. 또 Kant 같은 이는 계시신학(theologia revelata)은 아예 열외(列外)로 두고 이성의 자율성(自律性)을 운위한다. 그는 전통적 형이상학의 이성(이성)은 거부했지만 새로운 옷을 입은 같은 이성의 자율성을 논했을 뿐이다. 학문의 엄밀성과 객관성을 이렇게 구성하려는 이들이 있지만 Thomas Kuhn 같은 이가 Paradigm이론으로, 또 Gadamer 같은 해석학적 철학자들이 일종의 세계관적 선입견의 전제를 얘기한 것은 사상과 학문에 있어서, 또 해석적 작업같은 학문함에 있어서 이러한 종교적 및 세계관적 동인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것이다.

사실 신학적 체계가 제공하는 여러 교리는 인문, 사회과학은 물론

자연과학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신학이 창조론 교리를 제공함이 없이는 자연과학의 모든 분야는 진리를 찾을 수도, 바른 학문의 모습을 지닐 수도 없었을 것이다. 신학이 제공하는 인간론은 심리학과 교육학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며, 죄론과 구속론도 같은 학문영역과 사회학 등에 큰 영향을 준다.

그 밖에 신학이 성경에서 찾아 제시하는 구속사와 하나님의 경륜은 역사학과 물리학에 결정적이며, 또 신학의 거의 모든 분야는 철학에 영향을 행사한다. 특히 자연과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이 형이상학적 기초나 존재론의 문제에 연결될 때 신학은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신학은 학문에서 하나님의 존재나 인간과 세계의 피조성 등 존재론적 전제를 얘기하며, 또 신학은 Oxford대학의 교지(敎旨, Dominus illuminatio mea)처럼 하나님의 계시와 조명(照明)하시는 역사없이 인간 지혜만으로 어떠한 궁극적 진리도 찾을 수 없다는 인식론적 전제를 제시한다.

신학은 그 교리를 통하여 각 학문 영역의 내용을 토대 지우고 구성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학문의 출발과 방향, 그리고 목적을 얘기하며, 학문의 의미와 취지, 학문의 한계성과 역할, 또 그 학문의 주인(主人)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준다.

기독교 신학은 학문이 바른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게시의 빛 아래 놓여야 됨을 얘기한다. 그것은 각 학문이 내재적(內在的)인 준거점(準據點)만 지닐 때 참 학문이 될 수 없음을 말해준다. 기독교 신학은 학문이 그 신적 동인(神的動因)에 있어서 다신론(多神論)이나 범신론(汎神論), 그리고 무신론(無神論)에서 출발하는 것을 막는다. 그리고 이성의 분석과 판정의 절대화, 사유전개의 자유방임성, 주관적 지평(主觀的 地平)의 도그마(dogma)화 등도 제어한다. 그러면서 신학은

학문영역에 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존재론적 전제를 가지게 하여 유신론적 출발점을 갖게 하며 이성을 말씀에 복종시켜 신앙적 이성으로 사유하게 하며, 또 성경의 기본노선을 따라 사유하게 하며, 기독교 세계관의 지평을 지니게 한다.

3) 신학의 내부적 기능 가운데 마지막 기능은 교회적 및 교육적 기능이다.

신학의 본질적 생명성은 성경적 기초에 놓이지만 그것의 활력성은 교회의 봉사(奉事)에 놓인다. 두 번째 기능도 봉사적 기능의 요소가 있지만 이 세 번째 기능은 신학의 내부적 기능 가운데 가장 봉사적이며, 또 본연의 것이다. 신학이 교회에 대한 봉사성을 간과하고 지적인 사변의 노름과 강단 사상으로 머문다면 그것은 어쩌면 무의미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신학은 봉사하기 위해 존립하는 학문이고, 이 봉사의 첫 번째 대상은 기독교회인 것이다. 교회를 위한 신학의 봉사적 기능은 교리체계화와 신조 형성, 요리문답 구성, 교회교육의 내용, 설교와 교회 운영에 대한 성경적 지침 제공 등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거기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것의 체계적 구성물인 신학에 의해 움직여져야 한다. 교회 강단에서 행해지는 설교,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교육내용, 교회의 구성과 제도, 운영, 특히 교회의 성례전과 절기 등 이를테면 교회생활 전반에 지침을 준다.

이런 점에서 교리체계화 기능과 세계관과 학문의 기초 제공을 위한 기능이 주로 성경신학과 이론신학, 그리고 역사신학에 관련된다면 이 세 번째의 교회적, 교육적 기능은 우선은 실천신학에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Postmodernism의 시대에 교회 내에도 소위

탈중심화(脫中心化) 내지 해체주의(解體主義)가 등장하여 과거와 같은 교리적인 통일성이 미약하고 느낌과 부딪힘, 그리고 때로는 성경과 동떨어진 그릇된 성령운동만 강조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이런 움직임은 교회가 외형상으로는 생명력이 있어 보이나 실은 교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단적 요소가 다양한 모습으로 개인과 집단 속에 부지불식간에 산재(散在)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다소 딱딱하고 지적인 논쟁처럼 보이지만, 장로교의 교리적 전통과 논쟁은 교회의 든든한 기초를 위해 의미깊은 일이다. 체험은 일시적 내지 단편적이나, 교리는 지속적이고, 또 느낌과 부딪힘에 기초할 때 교회의 토대는 미약하지만 말씀과 말씀교리에 기초할 때 그것은 견고한 것이다.

또한 신학은 교회를 계속적으로 든든히 서 있게 하고 결집로 가는 것을 막아준다. 느낌과 부딪힘에 기초한 교회적 신앙은 교회를 자칫 신비주의나 그릇된 은사관과 종말론 신앙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신학은 교회에 말씀 중심성과 교리적 통일성, 그리고 성결 유지를 제공한다.

신학의 이 세 번째 내부적 기능 가운데 중요한 것은 교육적 기능인데 이 기능에는 분야별로 신학교육, 교회교육, 가정교육, 신앙그룹 교육 등 서너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신학교육을 위해서 신학은 깊고 넓은 체계적 내용을 제공해야 하고 때로는 일반신도에게는 "거친 음식"과 같은 신학 난제들도 제시하고, 또 교리사적인 측면에서의 구성도 제공해야 한다. 교회 교육을 위해서 신학은 복음의 의미와 역사, 그리고 교리의 가장 기본적인 요강을 제공하고, 그 밖에 가정, 학교, 신앙그룹을 위해서는 언약교리나 아동과 자녀들에게 맞는 교육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그릇된 신학적 사상에 근거하여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이론을 전개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인 손상이 됨을 안다고 할 때 신학이 교육에 대해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교육이란 삶과 유리될 수 없고, 또 신학은 기독교적 삶의 기초를 이루므로 기독교 교육은 신학적 사상과 성격과 분리할 수 없다. 신학은 교육에 지침을 제공하고 그 원리와 방향, 내용과 방법, 행정과 평가에도 지침을 준다. 신학의 교육에 대한 이러한 영향은 그것이 형성한 교육철학을 통해 행사되는 것이다.

신학은 교육자와 피교육자에게 다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 기독교 신학은 교육자를 세속교육의 내용과 경험에서 구해낸다. 특히 그로 하여금 파편화와 혼란의 지식에서 말씀 중심의 통합된 지식과 관점을 제공해 준다. 또한 신학은 교육자가 알아야 할 바르고도 정확한 성경적 신학을 제공해 주므로 진리의 바른 길잡이가 되게 한다. 나아가 어떤 사상을 접할 때 그것이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를 알게 하고, 또 어떤 신학적 착상이나 성경의 개인적 해석이 어떤 신학적 경향인지, 과거 신학의 역사에서 어디에 속하는 사상인지를 알게 해 준다. 또한 피교육자의 신앙적, 성경적 질문에 바른 답변을 제시할 수도 있게 한다. 이런 점에 기초해 볼 때 교회의 지도자와 교사는 물론 기독교 학교의 모든 교사와 교수들은 신학적 지식을 충분히 지녀야 한다. 적어도 그들은 자기 학문과 교육을 바른 신학의 기초 위에서 전개할 수 있는 관점과 지식을 소유해야 한다. 모든 교회교사와 모든 기독교 학교의 가르치는 자들은 준(準)신학자가 되어야 한다. 피교육자를 위해서도 신학적 지식은 그들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는 데에 매우 긴요한 것이다. 바른 신학적 지식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성경적 세계관과 인생관을 갖게 하고 또 여기

에 근거하여 이중적 내지 이원론적 생활을 청산하게 한다.

신학이 교육에 대해 갖는 기능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이 단순히 지식교육이나 인격교육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속을 위한 교육이어야 함을 가르치고 일깨워주는데 있다고 하겠다. 기독교 교육은 본질상 구속적이다. 말하자면 이 교육은 죄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과 실재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고 인격도야를 하는 것에 머물거나 만족하지 않고 먼저 그의 영적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나아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하나님께 영향을 돌리게 한다.

신학은 교육이 이런 목적을 전제하고 시작하기를 가르친다. 이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교육의 중심이요, 또 인간이 교육을 시작하지만 그것의 온전한 성취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 기독교 신학은 17세기의 교육자 Comenius의 말처럼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게 하는” 교육을 이루도록 한다. 이것이 신학의 교육적 기능이요 목적이다. 기독교 신학은 기독교 교육의 한계이다.

2. 신학의 외향적 목적과 기능

신학의 내부적 목적과 기능이 신앙인과 신앙공동체에 대한 것이라면 신학의 외향적 목적과 기능은 불신자와 불신자의 세계를 향한 것이다. 전자가 주로 신앙공동체의 신앙적 기초와 훈육을 위한 것이라면, 후자는 대개 불신자 세계의 영적 무지와 미신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복음을 소개하고 선포하는 기능을 지닌다. 이 외향적 기능을 세분해서 얘기하면 선교적 기능, 변증적 기능, 견책적 기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신학의 분과별로 얘기한다면 실천신학 내의 선교

학과 이론신학 내의 변증학이 이에 해당되었고, 이 때 견책적 기능은 변증학에 포함된다.

신앙인과 신앙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고 우선되는 명령은 성경적으로 볼 때 선교적 명령임에 이의가 없다. 창세기 초두에는 아직 죄 아래 머물지 않은 인류의 시조에게 하나님은 문화명령을 주셨지만, 신약에서의 예수님이 내리신 명령 가운데는 분명한 문화명령은 찾기 어려운데 비해 선교명령은 대명령으로 등장한다. 선교는 신자와 교회가 세상에 대해 갖는 가장 큰 과제이다. 어쩌면 신자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적 이론과 실체는 하나의 예외도 없이 불신세계에 대해 선교적 기능을 지닌다. 성경은 본질상 죄로 인해 어두워지고 타락한 인류를 계시의 진리로 밝혀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므로 선교적이다.

따라서 성경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신학도 선교적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또 지녀야 한다. 신학은 성경의 난해한 문제를 바르게 설명하기 위해 난잡한 이론을 전개하고 심오한 뜻을 풀어가기도 하지만 선교적 기능을 위해 복음의 평이한 요체도 구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신학이 무미건조한 사변적 논리로만 전개될 때 그것은 생명력이 없어진다. 신학은 영혼을 복음으로 끌어당기는 영적인 힘과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신학이 선교적 기능과 교회봉사적 기능을 팽개치고 하나의 “학문”으로 사변적 논리의 틀에 빠지고 언어유희에 매달릴 때 그것은 죽은 신학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신학은 결코 성경을 가지고 제멋대로 구성하고 짜서 내놓는 논리 놀이나 언어놀이가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학자나 신학도들도 선교적 목적을 염두에 둔 신학을 해야 한다. 그들이 신학을 전개할 때 성경의 사상을 따라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하며 그러한 진행이 성경의

즐거움을 떠나 인간 사변의 그물에 걸리고 그 방향으로 가게 될 때 그들은 신학적 사유를 그만두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성경적 신학자들간의 차이가 있다. 전자의 신학자들은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당연하게 인간적 논리와 합리주의적 사변으로 몰입하고 말지만, 후자의 신학자들은 자신들의 “신학함”이 성경의 사상에서 조금도 빗나가거나 또 그것을 넘어서지 않으려고 주의한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새로운 작업을 많이 한다고 알려지고, 성경적 신학자들은 독창적 학문적 업적 미미한 것으로 보여진다. 성경적 신학자들에게 성경은 이성적 사유의 논지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한계도 제공한다.

하여튼 학문을 인격에서 떼어놓으면 그 학문이 비인격적, 반(反)인격적으로 되듯이, 신학도 신앙에서 떼어놓으면 불필요하거나 또는 영혼에는 해가 되기까지 한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소위 “신학”은 많은 경우에 있어 종교철학에 그치고 만다. 성경의 사상에서 떠난 종교철학은 오히려 성경의 뜻을 곡해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의 참뜻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것에 이르지도 못하게 한다. 그것은 영적 방해를 하는 종교철학이므로, 차라리 그런 학문을 하느니, 성경을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것이다.

성경으로 그저 말하게 하지 그것에 어설픈 논리의 손길을 가하지 말 것이다. 신학의 신학다움은 존재적으로 성경에 철저하고도 온전하게 근거하고 신학자의 인격에 있어 그 성경적 신앙에 관련되어 있으며 불신세계에 대해서는 선교적 목적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

신학은 또 변증적이고도 견책적인 기능을 지닌다. 신학에 있어서 변증학(辯證學, apologetics)이란 분과학문은 광의적으로는 모든 비기독교적, 반기독교적인 사상에 대해 기독교교의를 옹호하고 또 전자의 허구를 비판하는 것이지만, 협의적으로는 철학사상에 대한 변증을 뜻

한다. 협의적 의미에서의 변증학이 철학에 대한 것인 반면, 협증학(驗證學, evidences)은 과학이론에 대한 것이고, 견책학(譴責學, elenctics)은 일반종교에 대한 것이다. 이 세 가지 학문을 광의적으로는, 또 유럽의 신학에서는 변증학(Apologetik)이라고 부르고 있다. 선교학이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심령으로 해야 하는 학문이라면, 변증학은 한편으로는 성경교의를 옹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를 비판하고 나무라고 또 그것과 더불어 싸우는 학문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 전쟁학 내지 투쟁적 교의학이라 할 수 있다.

신학은 이러한 투쟁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이 투쟁은 학문적인 성격의 투쟁이다. 이러한 학문적 투쟁을 통하여 신학은 내부적으로는 성경교의를 학문적으로 정당화하고 변호하는 역할을 하고, 외부적으로는 상대의 이론과 사상이 영적인 무지와 오류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고 비판한다.

과거의 신비주의, 체험주의나 근자의 오순절운동 등은 기독교의 신앙교의를 학문적으로 정당화하고 변호하는 시도를 안하거나 소극적으로 했을 뿐이다. 그러나 지성을 가져서 무단하게 질문하고, 또 질문할 특권을 지닌 인간에게, 또 그런 이성의 논리로 형성된 철학적 사상 앞에, 그리고 사탄의 작용과 어두워진 인간의 본성이 자의로 만들 어낸 다양한 종교적 제설 앞에 기독교는 자기가 믿는 신앙내용을 학문의 수단으로 정당화하고 옹호할 필요성을 지닌다. 하여튼 변증학은 방어를 위한 방패와 공격을 위한 창이나 칼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공격무기로 총을 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를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방패와 창 의 성격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방패를 지니면서도 그 방패가 너무 약하거나 움츠러드는 것이어서는 안되고, 창을 잡으면서도 그것으로 상대를

위협해서는 안될 것이다.

변증학은 궁극적으로 영혼을 얻는 학문이어야 한다. 변증학의 적극적 기능에는 선교적 기능이 명시적, 암시적으로 담겨져 있다. 상대의 이론과 사상이 틀리고 어리석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선교적인 성격도 동반시켜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학의 변증학은 학문적 선교행위의 학문이다. 그것은 무조건 믿는 것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논리와 지성을 동반해 신앙교의를 제시함으로써 복음에 접근시키는 것이다. 자유주의 신학은 변증학 내에서의 선교적인 성격을 부인할 뿐 아니라 대개 변증학이란 학문 자체도 거부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교의로 철학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며 신학도 인본주의적인 철학의 틀 속에서 짜맞춘다. 심지어는 기독교와 타종교를 제설혼합주의(諸說混合主義)의 방식으로 섞는 시도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철학사상을 비판하는 변증학뿐 아니라 타종교를 “꾸짖는”(ελεγμα) 견책학은 아예 개념조차도 없는 것이다. 자유주의 신학이 흔히 타종교에 대해 갖는 학문은 비교종교학(比較宗敎學)이다. 물론 과거에는 이 용어를 복음주의 계통의 신학에서도 사용했지만 그러나 그 때 복음주의 신학은 이것을 견책학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었지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기독교와 타종교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의 입장은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한 예로 나는 수년전 독일 München대학의 개신교 신학부에서 일어난 일을 들고자 한다. 그곳 신학부에서 선교학을 담당했던 Burkert 교수가 독일 개신교회의 영성 부족을 비판하고 카톨릭으로 개종하여 München의 주교에게서 영세를 받은 사건이 일어나자 개신교 신학부는 충격과 함께 새로운 교수로 영입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곳에 후임교수로 부임한 사람이 Michael von Brücker이었는데, 그는 목

사로서 오랫동안 Dalai Lama와 친교하면서 라마교의 사상을 접하고 Dalai Lama와의 대화록을 유럽에서 펴낸 사람이었다. Von Brücker은 모든 종교는 아직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고, 진리로 향하는 도상에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기독교와 타종교, 또 일반종교와 이단들간의 궁극적인 구분은 없고 다만 사회적이고 윤리적이며, 실제적인 측면에서 약간 구분될 뿐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필자는 그 대학의 철학부에 공부하면서도 그와 직접적으로 맞닥뜨리지 못했지만 공개강좌 등에서 갖가지 비판적 질문을 던졌는데 그는 상기한 자기 입장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그를 선교학 정교수로 München대학으로 오게 한 이는 그 대학의 W. Pannenberg 교수로 알려져 있는데, Pannenberg와 von Brücker은 결국은 München대학 신학부에서 “선교”(Mission)라는 이름의 학과를 지워버리고 그 대신 “비교종교학”(Vergleichende Religionswissenschaft)이라는 이름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제 여기에서는 선교와 기독교의 절대성, 복음의 진리성은 사라지고, 변증과 견책의 입장도 도입되지 못하고 결국은 빗장열린 문을 통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 당당히 신학의 성전에 침투하게 된 것이다. 이 대학의 이런 변화는 독일의 다른 신학부에 영향을 주어서 “비교종교학”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할 만한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현상을 “기독교의 개방화”, 나아가 “적들과의 화해” 내지 “적들의 친구화”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특히 지상명령으로서의 선교와 구세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볼 때, 이것은 적에 대해 싸우지 않고 행복하고 타협하고 절충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신학의 변증학은 상대의 사상에 대해서는 치열한 전투를 하는 것

이고, 상대의 인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선교적 의향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상대의 사상에 대해 타협의 자세를 취하므로 겉으로는 휴머니스틱하게 보이고 관용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음의 생수를 아세라의 잔에다가 담는 격이었던 것이다.

신학의 과거사는 교회사의 그것과 같이 늘 적과 대적해 왔다. 적은 늘 다양한 모양과 색깔, 다양한 무기들을 가지고 나타났다. 처음에는 플라톤철학과 이단들, 중세에는 오히려 내부로 변장해서 잠입했고, 근세에는 이성의 절대주의, 그리고 오늘날에는 과학 절대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적은 많고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이 적들은 늘 각양각색의 무기로 기독교를 공격해 왔다. 그것은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를 고대하던 시므온 노인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에게 “이 아이는 비방을 받는 표적”(눅 2:34)이라고 한데서 이미 잘 드러난다.

이런 적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낡고 오래된, 또 ‘어리석게’(cf. 고전 1:23) 보이는 창과 방패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에 역사하지만 시공을 초월하는 무기로, 같은 것이지만 늘 새로운 무기이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우리에게 장치만 잘 하면 되는 것이다. 하여튼 기독교는 수많은 적의 피상공격 앞에서 허물어지지 않고 내려왔다. 그렇게 박해하던 로마의 황제들과 플라톤의 철학, 맑스의 사상과 다윈의 진화론도 서산(西山)에 일락(日落)되어 넘어갔지만 기독교는 오늘날까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때까지 있을 것이고, 그 후에는 피안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속할 것이다.

이 전쟁은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는 전쟁이다. 세상 종말에는 모든 적들이 그것의 우두머리와 함께 사라지게 되는 선지자적 낙관론의 전

쟁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기독교 신학은 바깥의 공격은 물론 내부의 공격에 대해서도 변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신앙의 사상과 비기독교적 이론들에 대해 신앙교의를 변증하는 학문을 협의의 변증학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영역 내에서 신앙고백이나 교의적 차이가 있을 때 상호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는 학문을 논박학(論駁學, Polemics)이라고 한다. 이 논박학은 주로 성경 교의에 대한 해석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 *theologia polemica*가 이미 16세기에 천주교의 예수회(Jesuiten)와 루터파(Lutheraner) 간의 논쟁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면(예컨대 예수회 측의 Robert Bellarmin(1542~1621)의 “*Disputationes de controversis*”와 루터파의 Martin Chemnitz(1522~1586)의 “*Examen concilii Tridentini*” 등), 변증학(*theologia apologica*)이 교의학(敎義學)과 구분되어 독립 학문으로 나타난 것은 오히려 2세기나 지난 18세기였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에 대한 변증의 역사는 이미 바울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여하튼 이 변증학은 전투의 신학(*theologia militans*), 투쟁의 신학(*theologia eristica*)인데 이 투쟁은 학문적 성격만 지닌 게 아니라 영적 성격도 지닌다. 그것은 기독교 지성과 비기독교 지성간의 싸움이라기보다 기독교 복음과 진리에 대한 신앙과 불신앙의 영적 전쟁이다. 따라서 신학의 외향적 목적과 기능을 감당하는 변증학은 선교학과 달리 학문적인 작업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결코 단순히 논리적인 전개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또 상대의 지적 이해와 동의를 얻는 것에만 목적이 있어서도 안 된다. 변증학에 있어서의 승리는 결코 지적인 승리에 있지 않는 것이다. 그것의 최종적 목표는 영적변화와 영적승리이다.

신학의 유일한 길은 성경이고 신학함의 유일한 길은 성령님이시다. *Soli Deo Gloria!!!*